

평양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 참관기

휴전선 너머로 과학기술 '봄바람' 솔솔

글 | 채영복 _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필자는 지난 4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 평양에서 열린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에 우리측 참가단의 단장으로 참가했다. 그 동안 남과 북의 과학자들이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학술 교류를 개최한 적은 있었지만, 한반도 안에서 공식적인 학술대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가 갖는 역사적인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이 이번 모임은 학술교류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학술교류와 과학기술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책임 있는 기관간의 진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된 모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대회의 주최 단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남)와 민족과학기술협회(북),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였으며, 포항공대와 김책공대가 주관했다. 북측의 민족과학기술협회는 우리의 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국가과학원 산하 단체로 얼마 전에 새로 출범한 민간단체다. 그러나 국가과학원 부원장이 회장직을 겸직하며 사무국장은 국가과학원 제2국장이 맡고 있을 정도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구다. 민간 차원의 남북 과학기술교류를 주도하게 될 기구로서 향후 과총과 협력 파트너가 되어줄 기구로 볼 수 있다.

명실상부한 '민족 과학기술인'의 한마당

본격적인 학술대회는 4월 5, 6일 이틀에 걸쳐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 개회식에서는 리성욱 민족과학기술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민영립 국가과학원장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인 필자, 그리고 송기뢰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장의 축사순으로 이어졌다.

민영립 국가과학원 원장은 환영연과 개회식 축사를 통해 6·15 공동선언의 정신과 한민과학기술자들간의 만남을 높이 평가하고 장차 민족중흥을 위해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축사를 했다.

필자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파스퇴르의 이야기와 경제학자 루카스의 '지역불균형성장론'을 인용해 경제성장에는 과학기술의 기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7월 18일 과총 창립 40주년에 즈음해 열리는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에 북측 과학기술인들을 초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회식에 이어 NT, BT, ET, IT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리측은 4개 분야에 안배된 과학자·기업인으로 구성된 26명이 참석했고, 북측 과학기술인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참가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미국, 일본, 중국 조선족 과학기술인이 함께 자리해 명실상부한 '민족 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한마당을 이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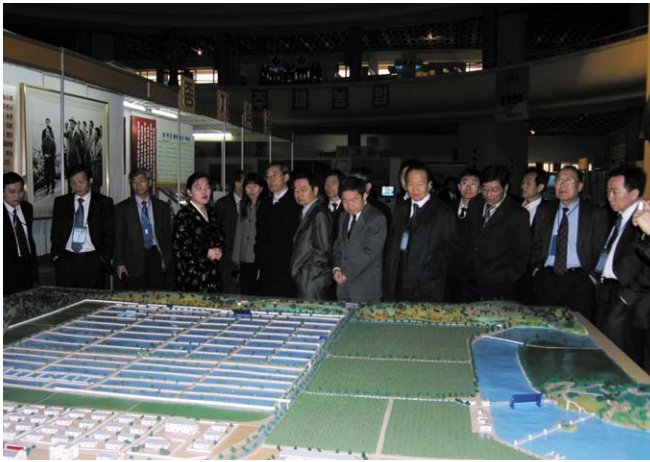
발표된 논문수도 우리측 14편, 북측 54편을 포함해 80여 편에 이르렀으며 분과회의장마다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을 정도로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협력연구'의 시작이 과학자 서로의 만남과 공통관심사 발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볼 때, 이번 모임은 향후 남북과학자들간의 상호 협력연구에 크게 도울될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남북 과학기술 협력의 상호 필요성 공유

북한측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발표를 보면서 남측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북측 과학기술인들이 최신 과학기술정보에 어두운 것 같다는 점이다. 특히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이 같은 한계가 느껴졌다. 하지만 연구의 추진 방법이나 내용, 연구성과의 발표방법 등에서는 북측 연구자들의 훌륭한 자질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바로 향후 지속적인 남북 학술교류와 상호 협력 방안의 논의였다.

남북 양측은 각각 미리 준비한 합의서 안을 내놓고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를 장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문 작성에



3대혁명전시관을 방문,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는 도달하지 못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다시 만나 매듭을 짓기로 합의한 채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북과학기술 협력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양측의 인식은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이었다. 조만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까운 시일내에 남한과 북한에 '과학기술교류센터' (가칭)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남북 과학기술인의 다양한 학술교류가 이뤄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궁핍한 농촌, 웃는 얼굴의 점원들

필자의 이번 방북은 개인적으로는 1946년 부모를 따라 북한땅을 떠난 후 정확히 60년 만에 다시 밟게 되는 터라 다소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24일 오후 베이징을 떠나 평양 근처 순안비행장에 도착했을 때는 비행장에 민족과학기술협회의 리성욱 회장이 우리측 참가단을 위해 영접을 나와 주었다. 우리 일행은 평양 시내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보통강려관'—문선명 씨의 통일교가 지은 호텔이라 함—에 여정을 풀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서 느낀 호텔 로비의 상점이나 노래방, 호텔 리셉션 종업원들의 친절함은 국내 어느 지방도시 호텔에 들어설 때와 같은 편안한 느낌이었다. 폐쇄된 사회의 경직성에서 오는 어색함은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호텔 장박을 통해 접할 수 있었던 행인들의 면면에서는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늠하기에 충분했다.

우리 대표단은 학술 토론회의 일정으로 인해 마지막 하루 묘향산 관광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관광시간이 없었다. 다행히 매일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 한두 시간 전 또는 점심식사 후 한두 시간을 할애해 평양 시내의 관광을 할 수 있었다. 관광지는 만수대나 만경대, 주체사상탑, 독립문 등으로 한정됐으나 오가는 도중에 차창 밖 거리의 모습이나 시민들의 표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삶의 체취



대동강과 평양시내를 배경으로 남측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묘향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는 차창 너머 북한 농촌의 실상을 볼 수 있었다. 농촌의 주택들은 집단으로 잘 배열된 다가구 주택들로 그 뼈대나 구조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 보였지만, 건물이 오래되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듯한 느낌이 강했다. 외벽 페인트가 삭아 어둡게 퇴색되어 있었고 유리창마저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못해 북한의 궁핍한 사정을 느낄 수 있는 듯했다. 아마도 이들 집을 건설했을 때만 해도 북한의 경제사정은 동구권과의 COCOM을 통한 교역이 비교적 활발한 형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구권이 몰락한 지금, 오히려 교역이 악화되면서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이들 낡은 건물들 속에서 읽을 수 있는 듯했다.

그러나 기념품점에서 열과 성을 다해 손님을 맞고 있는 점원들이나 음식점 여종업원의 친절함 서비스 속에서 변화하는 북한 사회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민족식당'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에서 가진 저녁식사 시간에는 남과 북이 함께 어울려 만취하여 무대 위에 올라 흘러간 옛 노래를 피아노 반주에 맞춰 흥겹게 부른 일이라든가, 묘향산 보현사에서 안내원들의 장난기 섞인 농담 속에서는 북한에 불어오고 있는 싱그러운 변화를 보는 듯했다. 남북 과학자들이 가족과 자식 교육에 얽힌 이야기를 격의 없이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북한 사회의 변화상을 보는 듯해서 흐뭇한 기분이었다.

아무튼 이번 방북은 필자에게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 이번 모임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을 비롯한 과총 관계자,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이춘근 박사 등 많은 분들을 비롯해 북측 관계자와 중국 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남과 북의 연결 역할을 담당해 준 재일 고려학회 관계자들에게 이 기회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㉔